

# 내년 1월 7일 컷오프...당대표 3·최고위원 8명 압축

■ 새정치 전준위, 2·8전대 경선 규칙 확정

## 당대표, 대권 출마맨 1년 전 사퇴해야

## 선거인단 구성 친노·비노 맞서 결론 못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2·8 전당대회 대표·최고위원 경선과 관련, 내년 1월7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당 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권리당원 인구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당대표가 대권에 나갈 경우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는 현행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15일 오후 내년 2·8 전당대회 경선 규칙 확정을 위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당내 계파 간 엇갈린 의견으로 대의원 과 권리당원, 일반당원 및 일반국민 선거인단 비율은 오는 18일 전준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날과 18일 결정된 내용을 오는 19일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함께 최종 의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준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우선, 선출직 최고위원 숫자는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TV토론과 순회연설 등을 감안, 당대표는 3명, 최고위원은 8명으로

컷오프하기로 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법과 관련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대표 선출의 경우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1인1표제를 하기로 하고 최고위원 선출의 경우 예비경선에서는 '1인1표 3인 연기명', 본경선에서는 '1인1표 2인 연기명' 방식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당헌 25조에 '당대표가 대권에 나갈 경우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경우 당대표의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공천권을 제한하기 위해 대선 2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경우 당대표 임기가 10개월에 불과하고 또 전대를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고 특정 후보를 지정한 조항이라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 당헌을 따르기로 했다.

또 지역별로 권리당원의 숫자가 편차가 심해 권리당원의 한표 당 비중을 달리하자는 주장 즉, 영남 등 당세 취약지역에 가중치 부여하

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모든 당원은 다 평등하므로 가중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가중치 부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새정치연합과 정책협약을 맺은 기관 혹은 단체에서 일정 숫자를 추천하는 정책대의원의 경우 2013년 5·4 전당대회 수준으로 선정한다고 의결하고 각 단계별 배정 인원의 50% 이상은 권리당원으로, 50% 이하는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현재 각 계파가 총동하고 있는 최대 쟁점인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일반당원·국민 여론조사 비율에 대해 친노(친노무현)계는 30%를 주장하는 반면, 비노(비노무현)계는 20%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전준위는 오는 18일 오전 7차 전체회의를 열어 당대표 최고위원의 권한 등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대 전당원투표제 등 4개항 요구

### 새정치 평당원 20여명 대표실 점거

자신들을 '평당원협의회' 소속이라고 밝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원 20여명은 15일 오전 9시 국회 내 당 대표실을 기습 점거했다. 이로 인해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원들은 회의장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30분가량 밖에서 대기하는 등 비대위 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했다.

국민주당계 당원이 주축인 이들은 '국민 공감 없는 비대위원 전원 사퇴하고, 참신하고 역량 있는 당 내의 인사들로(비대위원) 구성해 당원 중심의 전대 플랜을 마련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평당원들이 뿔이 났다", "당원이 참여하지 않는 선거는 무효", "꿈수 부러 통합하더니 또 장난 하나"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20일 출범한 뒤 원내대표, 사무총장, 혁신실천위원장, 전대준비위원회에 당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원 중심주의에 대한 당헌 명문화 ▲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시 전당원투표제 실시 및 당원소환제 도입 ▲비대위원 전원 사퇴 ▲강경노선 탈피 및 중도 개혁 정당으로의 노선 변화 등의 4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결국 이들은 문 위원장 등 비대위원과 면담을 약속받은 뒤 철수했다. 이와 관련, 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그(반대)사를 밝힐)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책임을 못냈다. 그래야 당이 있고 규율이 있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비대위 회의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통일부, 박지원 의원 등 8명 방북 승인

통일부는 1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를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명의의 조화를 전달하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일행의 방북을 승인했다.

이에 박 의원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 등 8명은 16일 개성을 방문한다. 북측에서는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답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화 전달이라는 점을 감안해(방북을) 승인했다"면서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8월 김 전 대통령 5주기 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의의 조화와 조건을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를 통해 개성에서 이 여사 측에 전달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 김정일 3주기를 맞아 추모 화환을 전달하기 위한 조건식 사장 등 현대아산 관계자들의 방북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조 사장 등 현대아산 임직원 8명도 16일 현대 개성 사업소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명의의 조화를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김부겸·추미애 도전설...野 당권경쟁 구도 변화 바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부겸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추다르크'로 불리는 추미애 의원이 조만간 당권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어서 전체적인 당권 경쟁 구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추미애 의원에 이어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를 결정하면 전대 구도가 세대 대결의 장으로 재편되면서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비대위원의 '빅3' 구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권 경쟁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혁신과 변화'를 고리로 단일화에 나선다면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미애 의원 핵심 관계자는 15일 "이번주 내에 당권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라며 "당원들의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권 창출의 마중물이 되고자 과거 광주에서의 '삼보 일배'의 심정으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전 의원도 마지막 장고에 들어간 상황이다.

최근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지지를 선언하고 86그룹(60년대 출생한 80년대 운동권 세대)도 연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와 호남 민심의 흐름에 따라 김 전 의원의 결단

이 운동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의원이 당권 도전을 접는다면 김 전 의원이 친노와 비노 진영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호남 민심이 지역주의 타파에 나서고 있는 김 전 의원의 진정성을 평가해준다면 충분히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 의원과 김 전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다면 현재의 '빅 3' 구도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전대 흥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김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그 어떤 사죄의 말씀도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의 일들로

국민 여러분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커다란 사랑을 주신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 어떤 사죄의 말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나무람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시금 사랑 받고 신뢰 받는 대한항공이 되도록

환골탈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